

민주 대선후보 문재인

경선 누적 득표율 56.5% ... 결선투표 없이 확정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선출됐다. <관련기사 3·4면>
민주당 임제정 선거관리위원장은 16일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순회경선에서 “민주당 18대 대통령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선출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투표소투표 득표율 합산한 결과, 민주당 후보 34만7183표(56.5%)를 얻어, 13만6205표(22.2%)를 얻은 손학규 후보를 20만표 이상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따돌렸다. 김두관 후보 8만7842표(14.3%), 정세균 후보는 4만3027표(7.0%)를 얻는데 그쳤다.

이후 문 후보는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 투표소투표 득표율 합산한 결과,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오는 23일 1, 2위 후보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선출됨에 따라 94일 남은 연말 대선을 향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전면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주 중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 야권 후보단일화 논의도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최대 승부처인 야권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에 따라 대선 구도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안철수 원장간 3자 대결 구도나 박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 간의 양자 대결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이날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저의 오늘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역사 위에 서 있다”며 “12월 대선 승리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후보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국정 철학으로 삼고, 공평과 정의가 국정 운영의 근본이 될 것”이라며 “특권층의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권력형 비리와 부패 엄단, 맑고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년일자리특위를 두고 청년실업문제를 쟁기고, 보편적 복지의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힐링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 “6·15, 10·4 선언의 정신으로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만들고 임기 첫 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며 “당내 계파와 시민사회까지 아우르는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어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오후 고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18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서울 경선'에서 1위를 차지,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주먹 친 손을 지지자들을 향해 들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6일 오후 제16호 태풍 산바(SANBA)가 빠르게 북상하자 여주시 국동항에 어선 등 선박 4800여척이 태풍을 피해 정박해있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

강력 태풍 '산바' 오늘 여수 상륙

광주·전남 큰 피해 우려 ... 초·중·고 임시 휴업키로

중심 최대 풍속 48m/s의 '매우 강한' 중형급 16호 태풍 '산바(SANBA)'가 17일 오후 여수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광주·전남이 이날 새벽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미 15호 태풍 볼라벤과 14호 태풍 덴빈으로 인해 1조원대 재산피해(생물피해 포함)를 입은 이 지역에 또다시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들이닥친다는 소식에 지자체와 지역민들은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6면>
기상청은 17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은 100~250mm, 남해안과 지리산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산바의 여수 상륙 소식에 16일 오전부터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은 곳곳에서 비를 맞으며 비닐하우스를 덮어매고, 논·밭의 도랑을 길게 파는 등 강풍과 폭우를 대비했다. 과수농가 농민들은 낙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배와 사과 등을 재배하기도 했다.

여수·목포·고흥 등지의 어민들은 항구에 정박시킨 선박을 옆 선박과 고정하고 있으며, 각 양식장에서도 어민들이 강풍에 따른 시설 파손을 우려해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과 오후 3시5분, 여수는 같은 날 오전 9시41분과 밤 9시56분으로, 이 때 해수면 최대 높이는 각각 4m64~74cm, 3m52~54cm로 추정된다.

광주시교육청은 17일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임시 휴업하기로 했다. 해당학교는 유치원 269곳, 초등학교 148곳, 특수학교 4곳 등이다. 중·고교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 휴업하거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모든 유·초·중·고에 17일 하루 임시 휴업하도록 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안철수 5·18묘지 참배...19일 출마 선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16일 대선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사전 예고 없이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빠르게 오는 19일께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발을 헌화한 뒤 참배했다. 이어 묘지관리사무소장의 안내를 받아 고 박관현 열사와 청암(靑巖) 송건호 선생의 묘지를 찾아 묵념을 올리고 묘역을 둘러봤다. 또 유영봉안소와 추모관 등을 찾은 뒤 11시20분께 승용차 편으로 묘역을 떠났다.

앞서 안 원장은 묘역 입구의 '민주의 문'에 마련된 문방명록에 '고이 잠드소서'라는 글을 남겼다. 안 원장 측은 “이날 방문은 개인적인 것이고, 일정도 비공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이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것은 사실상 대권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안 원장은 오는 19일과 20일 사이에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며, 안 원장 측은 이 중 19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자리에서 안 원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갬코 청산 투자금 환수 나서

광주시의 3D 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분야 한·미 합작 투자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가름할 미국 현지 '기술 테스트'가 실패로 끝났다. 광주시는 한·미 합작법인인 갬코(GAMCO)를 청산하는 등 이번 합작사업을 중단키로 했으며, 미국 측 파트너사를 상대로 기술테스트 실패에 따른 위약벌(penalty) 920만 달러를 받아내는 작

업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2면>
광주시는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D컨버팅 분야 한·미합작사업을 현 시점에서 중단하며 합작법인인 갬코는 청산·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2~14일 미국 LA에서 실시된 최종 테스트에서 미국 측 파트너사인 K2AM사의 기술력이 계약에 명시된 목

표치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것이다. 한·미 양측은 미리 준비된 2D영상물을 활용한 현지 기술테스트에서 1시간에 5초 분량의 3D영상물을 만들어 내면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기로 했지만, 실제 테스트에서는 1시간에 2.93초 분량의 3D영상물을 만들어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문태 광주시장은 “갬코 사업을 좀 더 일찍 중단하지 않은 것은 기술력 테스트 결과가 나와야만 미국 측에 920만 달러의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갬코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적지않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신성자동차(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3-1 / Tel. 062)226-0001

광주광역시: E 200 CDI BlueEFFICIENCY 1,790kg, 1,643kg, 219771, 11.6km/l, 3190, CO2 배출량 202g/km • E 220 CDI BlueEFFICIENCY 2,143kg, 1,875kg, 219771, 17.1km/l, 1190, CO2 배출량 157g/km • E 300 ELEGANCE / AVANTGARDE 3,490kg, 1,775kg, 219771, 9.2km/l, 4,410, CO2 배출량 254g/km • E 350 3,490kg, 1,790kg, 219771, 10.3km/l, 4,410, CO2 배출량 228g/km • E 350 4MATIC 3,490kg, 1,800kg, 219771, 9.9km/l, 4,410, CO2 배출량 246g/km • E 63 AMG 3,461kg, 1,900kg, AMG SPEEDSHIFT 7단 멀티클러치, 8.0km/l, 5,510, CO2 배출량 294g/km • E 350 Coupe 3,490kg, 2,19771, 9.9km/l, 4,410, CO2 배출량 228g/km • E 350 Cabriolet 3,490kg, 1,800kg, 219771, 9.4km/l, 4,410, CO2 배출량 248g/km *본 연비는 표준조건에 의한 연비이며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우암학원 창학62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